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26.(수) 06:00 < 11.26.(수) 석간 > 배포 2025. 11. 25.(화)

우리 배터리 업계 EU시장 진출 애로 해소 방안 모색

- 배터리법 등 배터리 분야 EU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26(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주최한 EU 진출 배터리 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여 본부장은 이차전지 및 소재 등에 대한 對EU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배터리 업계로부터 현지 진출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EU는 우리기업이 전세계로 수출하는 이차전지 품목 수출액중 15%(12.5억불, '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시장 중 하나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폴란드와 헝가리 등을 중심으로 EU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한 시장 진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 EU 배터리법 등에 따른 새로운 규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이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공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배터리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EU 규제 신설과 적용시기가 불명확하여 기업 운영상 예측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애로 등도 언급하였다.

여 본부장은 "이차전지와 양극재 등 소재 수출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對EU 수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터리 업계 우려 사항에 대해 "우리 배터리 업계의 EU시장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EU 및 개별 회원국과의 무역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양정식 (044-203-5660)
		담당자	사무관	김동영 (044-203-5664)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260)
		담당자	사무관	박문일 (044-203-426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